

## 미감아(未感兒),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폭력\*

오 현 석\*\*

###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한센인 잡지 『복지』와 천형(天刑)의 |
| 2. 공포가 빚어낸 타자: 한센병 소설 속 미감아 | 대물림: 미감아 취학 반대 운동       |
|                             | 4. 나오며                  |

###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소록도 한센인들은 평생 격리와 차별의 굴레에서 살아왔다. 특히 결혼과 자녀 출산이라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했다. 이런 억압을 피해 태어난 자녀들은 미감아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타자가 되었다. 본고는 한센병 소설(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윤정모의 『그리고 함성이 들렸다』, 소재원의 『그날』)과 한센인 잡지 『복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센인의 결혼과 가족 형성, 한센인 자녀 입학 거부 등 미감아 문제를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폭력과 타자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소록도 한센인의 단종수술, 결혼 허가, 자녀 출산과 관련된 한센

\* 이 논문은 2020년 12월 19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에서 개최한 <2020년 제3차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 부산대학교 전임연구원

병 소설의 서사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설은 우리 사회가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감염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한센인과 그 자녀들을 억압했던 문제에 초점 두고 있었다. 즉, 소설 속 소록도는 한센인 통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단종수술, 결혼 허가, 미감아 수용 등을 행했던 공간이었다.

다음으로 한센인 잡지 『복지』에 수록된 텍스트와 신문 기사에서 미감아 취학과 취학 거부 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타자화된 미감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미 한센병이 치료가능하고 전염력이 약한 질병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공포심을 가지고 한센인과 미감아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거부감을 거두지 않았다.

이처럼 미감아의 타자화 문제는 전염병에 대한 무지와 우생학, 인종주의가 결합하여 권력의 폭력과 대중의 두려움이 여과 없이 발산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타자의 목소리를 추적하고 복원하여 또 다른 타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주제어 : 한센인, 한센병, 미감아, 『복지』, 이청준, 윤정모, 소재원, 인권, 타자

## 1. 들어가며

코로나 시대 우리는 코로나 감염 또는 감염 가능성에 따라 확진자, 접촉자, 미접촉자로 나뉘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증폭될수록 부정과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힌 확진자 혐오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것은 21세기 전염병 팬데믹이 만들어 낸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감염병에 대한 혐오와 낙인의 사회사는 코로나 시대 갑자기 등장한 사회 현상이 아니다. 사실 100여 년 전 한반도의 한센인들에게

이미 이러한 낙인과 혐오가 똑같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타자화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센병과 미감아(未感兒)와 관련된 소설과 한센인 잡지 『복지』에 수록된 텍스트와 신문 기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만들어진 타자 문제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타자화 현상은 누군가 사회를 혼란 상태, 법질서가 통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를 ‘예외상태’로 만들어 법의 위력을 정지시키고 법 진공상태에서 그 세계를 관리<sup>1)</sup>하는 질서로 활용하는 정치적 산물이다. 여러 권력이 대결하거나 혼란한 사회에서 예외상태에 대한 저항을 정지시킬 방법 중 하나가 타자화이다. 한센병과 관련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이미 한센병을 둘러싼 타자화 양상이 근대 우생학적 관점에서 생명관리정치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것은 증명되었다.<sup>2)</sup>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룬 ‘한센병과 미감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감추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한센병 신규 발생이 감소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한센병은 대중들의 기억에서 거의 망각되었다. 나병(나환자), 문둥병(문둥이), 천형(天刑)의 병 등 과거 사회적 낙인이 새겨진 한센병 용어는 1960년~1970년대 한센인 잡지 『새빛』과 『복지』를 통해서 ‘한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한센병 대중 계몽운동이 시작되었다.<sup>3)</sup> 하지만 우리 사회는 거의 30년이 지난 2006년에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센병(한센인)’이라는 법정 용어를 확정할 정도로 오랜 시간 한센인들은

1)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68-69쪽.

2) 김재형, 『한센인의 격리와 낙인·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9; 오현석,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 『인문연구』 7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01-134쪽; 정근식, 『동아시아 한센병사를 위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12권, 한국보건사회학회, 2002, 5-41쪽. 등의 논의를 참조

3) 한순미, 『“나병은 낫는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구보학보』 21집, 구보학회, 2019, 465쪽. 1960년대 중반 『새빛』지를 통해서 한센병과 관련된 용어(문둥이, 수옹, 격리, 이송, 미감아 등)를 개선하기 위한 계몽운동은 이 논문을 통해 참고할 것.

사회적 낙인과 침묵의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다.

‘미감아’라는 용어 역시 한센병 자녀를 특징하여 “병에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아이, 나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병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sup>4)</sup>라는 의미로 사용된 타자화의 흔적이자 사회적 폭력을 드러낸다. 하지만 미감아라는 어의(語義)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모두 현재 코로나 시대에 미감인(未感)人일 것이다. 곳곳에 확진자와 접촉자가 존재하고 재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두는 현재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감아 문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회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한센인 자녀들을 분류하고 타자화시킨 폭압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타자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문학 연구자들은 노동, 인종, 지역, 장애, 질병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부류의 타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말한 비동일화, 즉 ‘동일화’에 실패한 주체들이 소외 상태에 놓이면서 타자화되는 과정<sup>5)</sup>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는 타자 연구의 주된 소재였다. 특히 사회적 요구와 나(주체)를 동일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와 집단의 폭력 문제와 동일화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의 굴복-굴종 등이 양산하는 소외 문제는 타자들의 인격에 크나큰 상처를 준다. 그래서 동일화 의식을 미끼로 타자 이전의 주체에게 주어진 기울어진 선택지를 비판하는 주체-동일화의 타자론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문학 연구의 중요한 테마였다. 문제는 이러한 이기적인 동일화에 동의하거나 혹은 저항하여 비동일화 상태에 놓이거나 간에 이로 인한 지금도 여전히 권력자, 힘을 가진 자들의 횡포가 끊임없이 반복·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서조차 현재까지도 ‘나환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한센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5) 김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79쪽.

언어는 주체 내·외부의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각 존재의 고유성에 집착한 나머지 주체와 타자를 구분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동일화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주체의 동일화 기준에서 떨어진 존재들-타자로 규정되어 경계 밖으로 내던져진 존재-은 표면적 언어에서부터 도태되었다.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유대인, 선천적 장애인,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수많은 존재들이 동일성에 포섭되거나 배제되면서 타자화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타자를 양산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미감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 제도의 타자화 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를 문학적, 사회학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감아의 타자화 문제는 전염병에 대한 무지와 우생학, 인종주의가 결합하여 권력과 집단의 두려움과 광기가 여과 없이 발산된 '만들어진 타자'이다. 또 국가와 권력이 만들어 놓은 타자에 동일화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표출했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타자화된 한센인과 미감아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들의 타자화 과정, 주체-객체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수많은 타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연구가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공포가 빚어낸 타자: 한센병 소설 속 미감아

사실 한센인과 관련된 문학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과거 한센인들은 소록도나 집단 시설에 수용되거나 감금되는 등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대중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실에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감추어진 존재로 살아오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센인협회 등 서서히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한센인들의 이야기가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유로 한센병 문학작품

역시 그때부터 소설, 수필, 투병기, 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시 장르를 한센인 시인으로 유명한 한하운이 있었지만 소설의 경우 이렇다 할 작가나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 서사 구조와 분량 등 서사 장르의 경우 전문 문사가 아닌 이들이 창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신동아』에 연재되었던 무명생의 『혈루록』<sup>6)</sup>이나 해방 이후 심승의 『애생금』<sup>7)</sup> 등은 한센병 환자였던 작가가 창작한 투병기나 인생 기록에 가까운 글이었다. 본격적인 한센인 관련 소설은 1970년 요산 김정환의 『인간단지』를 시작으로 1976년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 나오면서 이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한센병과 미감아 문제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미감아가 타자화되는 과정과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한센인 관련 여러 소설 중 특히 미감아 서사가 잘 드러나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sup>8)</sup>, 윤정모의 『그리고 함성이 들렸다』<sup>9)</sup>, 소재원의 『그날』<sup>10)</sup>을 대상으로 텍스트로 선정했다.

미감아는 우리 사회의 한센병에 대한 공포와 거부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적 의식의 산물이다. 또 천형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 다시 천형을 범한 증표이다. 반대로 천형의 죄인들이 타자가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간으로서 받아들인 증거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제정된 <조선나예방령>에 의해 한센인들의 격리와 구속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인간으로서 지닌 기본권을 한센인들

6) 무명생, 『혈루록』, 『신동아』 3권 제11호-4권 제7호, 동아일보사, 1933-1934. 정근식, 『사회적 타자의 자전문학과 몸-심승의 ‘나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23, 2004, 325쪽 서지사항 재인용.

7) 심승, 『애생금』, 『신천지』 1권 5호-2권 4호, 서울신문사, 1946-1947. 정근식, 위의 논문, 326쪽 서지사항 재인용.

8)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1976.

9) 윤정모, 『그리고 함성이 들렸다』, 실천문학사, 1986.

10) 소재원, 『그날』, 마래, 2014.

로부터 빼앗는 단종수술(斷種手術)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sup>11)</sup> 단종은 단순히 불임수술의 의미가 아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유교 의식이 강했던 사회에서 반강제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 당시 사회가 한센인들을 우생학적 열성으로 사회 안녕의 위협 요소이자 두려운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대를 잇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섬에도 비둘기장(家庭舍)은 있다. 구북리와 서생리 중간지대에 나란히 선 세 채의 건물, 1동 6방씩 지어진 그 비둘기장은 그러나 거의 비어 있었다. 입주 조건 때문이었다. 자격이야 호적상 부부면 되었다. 그럼에도 원내에는 따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정식 부부들이 50여 쌍이나 있었다. 모두들 함께 살기를 열렬히 원했지만 단종수술(斷種手術)을 받아야만 입주를 허락했음으로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 조건 앞에 고개를 저었다. 비둘기장의 꿈보다는 자신의 씨를 말려 조상에게 대역죄를 짓는 일이 더 두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천형(天刑)과 자손에 대한 욕망은 전혀 별개의 것이었던가.<sup>12)</sup>

그야 물론 그 단종수술이라는 게 이 섬에선 워낙 원한이 맺힌 풍속이라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여기선 아직도 단종수술을 많이들 권하고 있거든요. 시집가고 싶은 처녀 아이들 눈썹 성형 수술하며 혼전 단종수술이라는 건 이 섬에서만 유독 많이 보이는 수술이지요.<sup>13)</sup>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것, 부부가 한집에 사는 것, 부부가 자식을 낳는 것은 인간이 지닌 당연한 권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한센인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수십 년의 염원과 눈물이 담겨 있는 쟁취해야 할 권리로 존재했다. 인용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록도에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단종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야 가능했다. 심한 경우 단종

11) 국립소록도병원, 『소록도80년사』, 국립소록도병원, 1996, 59-60쪽.

12) 윤정모, 앞의 책, 109-110쪽.

13) 이청준, 앞의 책, 382쪽.

수술이 전제되어야 결혼이 승인되었다. 이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의 두려움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현되어 이들을 타자화시켰던 예임을 보여준다.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니었음이 이미 밝혀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한센인과 한센병은 일반인들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였다. 더 나아가 결혼 이후 태어날,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도 타자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단종수술이라는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들이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자신의 씨를 말려 조상에게 대역죄를 짓는 일’과 ‘천형과 자손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 사이에서 한센인들은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존재 여부를 자신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인간 본연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제도의 폭력 앞에서 그들은 수없이 자신이 인간인지를 되물었을 것이고 사회의 타자임을 인정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처녀 아이들이 ‘눈썹 성형 수술’과 ‘혼전 단종수술’을 하는 것 또한 한센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눈썹은 한센인의 흔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이다. 한센병이 발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눈썹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과 같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처녀 아이들은 눈썹 문신을 해서 그 흔적을 가리고자 했다. 즉, 처녀 아이들은 한센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식을 눈썹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 속에서 처녀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센인의 단종수술은 자신이 한센인으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욕망을 잠재우고자 하는 제도적 억압이 뭉쳐있는 복합물이다.

이런 억압 속에서 한센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반항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 저항을 뿌리 뽑고자 한센인들의 자녀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미감아’라는 타자의 굴레를 씌워



버렸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전염에 대한 두려움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현실로 가져왔다. 현재를 살아가는 미감아를 잡아먹는 연좌제를 통해 국가는 한센인들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자녀 출생이라는 축복의 순간에도 양가적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7월 2일 율성이 죽었다. (…중략…) 남생리 관할 진료소 앞 소나무에 목을 매단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율성의 그 여인도 세상을 떠났다.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애를 가졌다 하여 사또에게 배를 건어차였고 그 뒤 계속 하혈을 하다가 며칠 후 숨졌다고 했다. 임신 6개월 만의 일이었다.<sup>14)</sup>

이때 이미 여자에겐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있었다. (…중략…) 하지만 그런 며칠이 지나고 나니 두 사람 사이엔 새로운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실이 탄로 나고 보면 두 사람 앞에 닥쳐올 재난은 보나 마나 뻔했다. 단종수술 같은 건 나중 일이고 우선은 그 엄중한 금기를 범한 데 대한 병원 당국의 가혹한 벌책을 모면해나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스스로 비밀을 자백하고 나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뱃 속의 아이를 떼어내 버릴 수도 없었다. (…중략…) 그리고 이때부터 섬에선 그 설명이 불가능한 수수께끼 같은 일이 실현되고 있었다. 섬 전체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당국의 눈을 피해 자기들끼리 은밀히 길러내기 시작한 것이다.<sup>15)</sup>

소록도에서 한센인의 임신과 출산은 금기였다. 근대적 무지와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 낸 편견은 한센인을 오염된 존재로, 그들에게서 잉태된 생명을 오염이 예정된 존재로 몰아세웠다. 일제는 이들을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타자로 규정하고 인격을 빼앗아 버린 후 한센인들의 강제 격리 정책과 단종수술을 정당화시켰다. 일제는 한센병을 후진국의 저급한 인종들에게 발병하는 병으로 인식<sup>16)</sup>하는 우생학적, 인종주의적 관점

14) 윤정모, 앞의 책, 116-117쪽.

15) 이청준, 앞의 책, 141쪽.

에서 접근하여 세계 대국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본토를 비롯하여 식민지로 삼았던 조선, 대만에서 한센인 단종수술을 합법화했다.

위의 인용문과 같이 윤정모의 『그리고 합성이 들렸다』에서 아이를 가진 한센인 부모의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센인의 임신이 소록도병원 관리자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규정 위반으로 독방 감금, 구타, 임신중절 등 수많은 폭력이 그들에게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고 아이를 가진 엄마는 수간호장 사또<sup>17)</sup>의 폭행으로 태아와 함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한센인들이 이러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 소록도의 금기를 깬 상황의 비밀을 유지하여 부모와 아이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장면이 나온다. 한센인들은 동료의 출산으로 인한 병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양육의 기쁨이라는 양가적 감정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위험 속에서도 집단적 보호를 선택했다. 동료의 출산은 단종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는 그들의 이루지 못한 꿈과 욕망을 대리 만족시키는 증표였다. 또 단종수술을 거부하여 결혼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실현하지 못한 미래를 자신의 눈앞에 보여준 확실한 희망이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 섬 안에서는 모든 일이 입으로 말해지는 것과

- 
- 16) 당시 서양에서도 한센병을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한센병이 발병하자 유럽인들은 이를 인종의 우열 문제로 치환시켰다. 이는 식민지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내재된 현상이었다. 일제 역시 세계 패권에 대한 야욕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한센인을 통제함으로써 선진국임을 표방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한센인 단종수술은 일본, 조선, 대만에서만 이루어졌다. 인종주의에 근거한 유럽의 한센병 인식은 김재형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재형, 앞의 논문, 44-59쪽.
- 17) 수간호장 사또는 실제 소록도병원에서 수간호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소록도 4대 병원장이었던 수호 원장(1933-1942)의 양자이자 심복으로 사또는 소록도에서 한센인 환자들에게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수호 원장이 1942년 이춘상에 의해 제거된 후 소록도를 떠났다. 국립소록도병원, 앞의 책, 64-87쪽.

실제 행동 사이에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오히려 상식이 되고 있는 편이구요.”(…중략…) “저흰 늘 저 아이들에게 나병은 유전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병보다도 이 병은 전염성이 약하므로 너희들은 다른 건강한 아이들과 아무것도 다를 데가 없는 떼뻐한 어린이라고 말해 줍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 아이들은 직원들 자녀들이 다니는 고개 너머 초등학교로는 등교를 못합니다.”<sup>18)</sup>

이 섬은 지금까지 문둥이들의 후손을 팔아 다스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손의 이름을 빌린 미래를 구실로 하여 현재가 다스려지고 있다는 생각, 그러나 섬의 현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현실이 미래로 인해 속고 있다는 생각, 그러나 사실 이 섬에선 미래보다도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반발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위한 미래 부정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현실의 실패 때문에 섬의 현실이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지는 생각이 그런 식의 반발로 연결되어 나온달까.<sup>19)</sup>

이미 의학적으로 한센병 균은 활동성이 뛰어난 병균이 아님이 밝혀졌다. 외부로 한센병 균이 노출되는 순간 바로 사멸해버리기 때문에 현재 까지도 한센병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센병에 감염이 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감염 이후에 발병하면 장기간 치료가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한센병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 보급되지 않고, 병증이 활성화하거나 증증으로 발병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컸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한센병이 의학적으로 통제가 가능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 우리 사회에서 존재했던 유전 또는 감염에 대한 극도의 경계나 두려움은 과거에 기반한 비과학적, 비논리적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상황에서도 현실의 대중 인식과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제도는

18) 이청준, 앞의 책, 50쪽.

19) 이청준, 앞의 책, 382쪽.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입으로 말해지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증명된 사실과는 다르게 1970년대까지도 여전히 미감이라는 존재를 유전 또는 감염 가능자로 치부했다. 그래서 한센병 발병이 줄어들고, 완치된 한센인들이 한센병의 관리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미감아는 우리 사회의 타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계 외부에 머물러야 했다.

‘미감’ 즉, 한센병에 국한해서 사용한 미감염이라는 용어는 환자와의 접촉을 전제하고 감염 예정을 가정하고 있다. 즉, 접촉 가능성은 감염 예정을 정당화하고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공포와 낙인을 감염 위협에 대응하는 반응으로 귀결시켰다. 이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현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접촉을 근거로 “특수한 아이들에게만 형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와 함께 한센인 자녀 이외에 “많은 접촉자들이 오히려 이 표현에서 제외”<sup>20)</sup>된 상황은 사회가 서로 동일한 사실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불합리한 현상이다. 감염 가능성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누구나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접촉자들이 모두 미감인(未感人)으로 타자가 되어야 논리적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독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에게만 감염 가능성의 잣대를 들이댔다. 현재 코로나의 감염 가능성과 접촉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미감아는 결국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타자임을 알 수 있다. 한센인과 한센인 자녀에게 가해졌던 비논리적 폭력은 이들을 사회에서 도태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사람들은 한센병에 걸린 환자 자식들이 예쁘고 잘생긴 이유가 아이들을 유혹해서 간을 빼먹기 위한 수단으로 마귀가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녀에게도 같은 소문이 적용됐다. 동네에서 그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아이를 혼낸 뒤 “그녀는 너 같은 아이를 흘려서 간을 빼가려고

20) 영남대학교총장 덕암 유준 박사 고회기념문집 간행·편찬위원회 편, 『나무 심는 마음』,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198쪽.

곱게 태어난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여. 구미호가 예쁘지? 그래서 남정네들 흘려서 간을 빼먹잖여. 그년도 마찬가지로. 지 아비에게 간을 가져다주려고 예쁘게 태어난 거여.”<sup>21)</sup>

한센병에 대한 구성원들의 두려움은 극단적인 유언비어까지 만들어냈다. 한센인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살이 있는 아이를 잡아가서 간을 빼먹는다는 등의 소문이다. 전혀 신빙성 없는 것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소문들은 사실처럼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촉발되었다.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부모들이 한센인과 그들의 자녀들과의 접촉을 막고자 아기 간을 빼먹는 혐오의 대상으로 한센인을 편취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더 큰 문제는 한센인의 자녀들 역시 이런 유언비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였다. 또 다른 예로 김정한의 『인간단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마을 아이가 실종되자 마을 주민들은 산에 사는 한센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폭력을 휘둘러 한센인 처의 생명을 앗아버린다. 그런데 실종되었던 아이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사과 없이 돌아가 버렸다. 한센인은 억울한 처의 죽음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한센인 소설의 서사에서 한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천형의 죄인이 되고 자식에게까지 그 고통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날은 마침 미감아 보육소 아동들의 부모 면회가 있는 날이었다. 보육소 아동들의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 행해지는 서무과와 보건과의 협동 업무였으므로 (...중략...) 미감아 보육소는 완충 지대로 넘어가는 직원 지대의 경계선 철조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유아 보육원과 직원 지대에 있는 이 섬 초등학교의 분교 역할을 겸하고 있는, 반 병사 지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3백여 미감아 가운데서 취학 적령기가 된 아이들은 고개 너머 건강인 초등학교에 서류상의 입학 절차를 취한 다음 이곳에서 따로 분교 수업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유아기 아동들

21) 소재원, 앞의 책, 53-54쪽, 190-191쪽.

은 발병 증세를 보이지 않는 한 취학 적령기에 이를 때까지 그저 하릴 없이 이곳에서 격리 수용 생활을 참아나가고 있는 격이었다.<sup>22)</sup>

병사 지대에선 벌써 아이들의 부모들이 완충 지대로 들어와 있었다. 완충 지대와 건강인 지대를 가르는 철조망 뒤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해 서서 각기 자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면회 행사는 곧 시작되었다. 철조망을 기준으로 병사 지대 쪽 어른들이 먼저 2미터의 거리를 물러섰다. 군데군데 감시 직원이 배치되고, 이 쪽 아이들이 제각기 자기 육친을 찾아 철조망 앞으로 다가섰다. 아이들 역시 철조망을 기준해서 2미터 거리를 표시한 직선 위에 일정하게 발을 머물러 섰다.<sup>23)</sup>

소록도 미감아들은 병원 입장에서는 태어남이 금지되었던 존재들이고,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다. 그런 금기를 깨고 세상에 나온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감염 예방을 위해 한센인 부모로부터 분리되었다. 한센인들은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뚫고 자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식만큼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감염 예방을 위한 목적과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일반인들처럼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음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렵게 낳은 자식이지만 소록도 한센인의 자녀들은 대부분 소록도병원 직원 지대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소록도 내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이별한 한센인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 수탄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한센인 자녀들은 철조망을 앞에 두고 부모와 한 달 만에 얼굴을 마주 보는 안타까운 천륜을 이어갔다. 병사 지대와 직원 지대로 구분된 경계에 위치한 수탄장은 아이들이 사회적 타자로 낙인찍힌 부모를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공간이었다. 병자들이 있는 병균에 오염된 공간과 자신들이 서 있는 청정한 직원 지대로 구

22) 이청준, 앞의 책, 48쪽.

23) 이청준, 앞의 책, 48-49쪽.

분된 공간은 이러한 오염/비오염의 공간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역시 타자화된 존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제도가 기획한 횡포이기도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록도 한센인들은 고통스러운 노역을 견디며 살았다.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삶은 그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기원했다. 즉, 한센병으로부터 깨끗한 인간이 되기를 염원했고 자식만큼은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소록도 보육원에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들은 고통스러운 소록도 생활을 견뎌냈다.

반대로 권력과 제도는 한센인의 자녀를 볼모로 소록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어서 한센인들은 탈출, 반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록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감염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미감아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그 어떤 소록도 유지 정책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처럼 미감아 문제는 단순히 한센인 자녀를 미감아로 개념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 체제의 유지와 소록도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2장에서는 한센인 관련 이청준과 윤정모, 소재원의 소설에 드러난 한센인 자녀들에 대한 서사를 중심으로 미감아가 타자화된 상황을 분석했다. 소설 속 미감아와 한센인 서사는 일제강점기 소록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편의 소설은 각각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작가들이 당대적 시선으로 한센인의 고통을 살핀 작품들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소록도라는 공간과 한센인이라는 대상,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포착하여 작품화한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각의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간’이 서로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와 타자화된 존재에 대한 애정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에 드러나는 미감아 서사는 특히 한센인의 단종수술

로 인한 인간기본권 박탈, 사회적 혐오와 낙인을 목적으로 미감아를 구분한 비논리성, 미감아를 이용한 체제와 제도 유지의 목적 등에 대한 숨겨진 서사를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한센인 잡지 『복지』와 천형(天刑)의 대물림: 미감아 취학 반대 운동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단순히 한센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마저 사회적 타자로 만들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을 가로막은 낙인의 운명이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을 용납할 것인가? 천형에 처한 부모는 그 고통의 씨앗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삼켜 없애려 했지만 사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지없이 사회 안전과 보건학적 이유로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확신하며 미감아 격리와 배제를 정당화<sup>24)</sup>시켰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센인들에게 자녀는 단순히 자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을 거쳤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권이 한센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센인들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했으며, 자녀를 잉태할 권리, 자녀가 태어날 권리마저 국가와 제도에 의해 통제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를 지켜냈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법률<sup>25)</sup>에서 그 피해를 규정할 만큼 광

24) 오현석, 앞의 논문, 110쪽. 미감아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센인을 타자화한 문제와 다르지 않다. 국가의 폭력이 미감아의 격리, 부모와 분리, 소록도 미감아 보육소, 수탄장(愁嘆場) 등과 같은 격리와 배제를 양산한 것이다.

2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 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범위하게 벌어졌던 소록도 한센인들의 격리, 단종, 낙태 등 인간기본권 침해 사건들은 당시 한반도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천부인권의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자녀 출생과 양육을 제한하는 것은 가장 반인륜적인 행위이자 합리화될 수 없는 만행인 것이다. 이처럼 한센인들에게 행해졌던 단종수술은 한센인들을 인간으로서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한센병의 전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의학적 근거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국가적 폭력행위이다.

이 법률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해 사실로 규정한 사건들의 범위가 해방 이후 한센인들의 단종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한센인 피해보상과 명예 회복이 대한민국 법률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선총독부의 책임과 보상 여부는 피해자 지원법에서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당한 한센인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sup>26)</sup>

일제강점기 소록도 결혼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 일제강점기 소록도 갱생원은 초기부터 남녀 별거제를 실시해왔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에도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26) 홍석재, 「고아 아닌 고아, 죄인 아닌 죄인...평생 ‘한센 가족’ 낙인, 한스러워요, 『한겨레』, 한겨레신문, 2022.4.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093.html?\\_ga=2.90157149.751405016.1661671731-1216278069.1661671731](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093.html?_ga=2.90157149.751405016.1661671731-1216278069.1661671731)(검색일:2022.8.28.)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1936년 계속된 원생들의 요구로 부부 동거가 허가되었지만 그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었다.

1. 호적상의 부분인 자
2. 호적상의 부부가 아닐지라도 정식 결혼식을 올려 사실상 부부인 자
3. 일찍 수용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는 자로 일반이 인정한 자
4. 내연 관계에 있는 자로서 확연하게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각 병사지구에 있는 사장(舍長) 기타 유력 환자 수명의 증명을 받는 자
5. 그 환자로부터 특히 동거를 원한 자에 대하여는 각 병사 지구에 있는 사장 기타 유력 환자의 인정을 받는 자로서 일반인으로부터 이의 없는 자
6. 이상 각 항을 구비할 자라도 그대로 동거시키면 격리 수용의 의의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니 미리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단종법(斷種法: 斷種手術)을 실시한 뒤 동거할 수 있다.<sup>27)</sup>

위와 같이 일제강점기 소록도 부부 동거 규정에 단서 조항으로 단종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본인의 신고”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합법적이고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규칙인가? 인간기본권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 소록도 원생 중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이들은 이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단종수술에 동의하고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표면상 ‘동의’는 선택지가 없는 강제된 동의였다. 한센인들은 기본권을 통제하고 단종수술로 인해서 후대를 기약하는 것마저 봉쇄당했다. 그래서 이들의 결혼은 그들이 살아가는 현재가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존재가 지워져 버려 스스로 배제된 존재임을 다시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 스

27) 국립소록도병원, 앞의 책, 59-60쪽. 밑줄 인용자. 일본에서는 이미 1915년부터 자국 한센인 요양소에서 단종수술을 실시해왔으며, 소록도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소록도에서 단종법을 피해 몰래 자녀를 가진 일부 한센인도 존재했다. 하지만 인간이 되고자 했던 이들의 일탈을 국가와 제도는 강제 낙태나 신생아 살해 등을 통해 용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위기를 겨우 피한 소수의 한센인 자녀들이 미감아로서 살아갈 권리를 부여받았다. 소록도 외부에 있었던 한센인들의 경우에는 제도의 통제는 피했지만 한센인의 자녀로 낙인찍히는 원죄를 피하기 위해 입양시키거나 고아원 등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미감아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하거나 원해서 성취된 삶이 아니다. 부모가 그들을 잉태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 사회에서 미감아로 정해진 존재였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 비동일화를 선택한 타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타자이다. 즉, 그들은 타자로서 동일화를 시도할 수조차 없이 비동일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소외된 존재였다. 이와 같이 그들이 지니게 된 원죄인 한센병의 자식이라는 굴레는 사회가 만들어 둔 시스템 속에서 주체가 꿈쩍달쩍하지 못하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족쇄였다.

한센인들은 자신이 낳은 자식의 운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혈연으로 이어진 인연을 국가와 사회에 의해, 또는 그들 스스로 놓아야 하는 상황에 수없이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 한센인들이 한센병 계몽운동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미감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대표적인 한센인 잡지 『새빛』과 『복지』에서도 미감아 문제는 주요한 화두였다. 『새빛』에서는 한센병 계몽에 초점을 두고 ‘미감아’라는 용어 문제에 주목<sup>28)</sup>했다. 『복지』에서는 한센인들의 수기 등을 통해 미감아 문제를 그들의 실제 삶의 문제에 밀착시켰다. 그중에 특히 미감아 교육 문제가 당시 가장 큰 갈등 요소였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한센인들의 사회생활이나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1960년대에 중반 이후부터 한센인 정착촌이 형성되고 소록도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28) 『未感兒童의 保育問題』, 『새빛』, 1965.2, 7쪽. 한순미, 앞의 논문, 465-466쪽 참조.

생활과 경제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가(在家) 한센인들도 늘어나고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한센인의 자녀 중 취학 연령에 도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미감아 교육 문제는 한센인 부모들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거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에는 창간 직후부터 미감아 문제를 다룬 텍스트들이 지속적으로 수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감아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들이 수록된 한센인 잡지 『복지』를 살펴보고 만들어진 타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미감아들의 삶에서 타자화 이면에 숨겨진 국가와 사회, 제도의 폭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한센병 관련 대표적인 잡지로는 『새빛』과 『복지』를 들 수 있다. 『복지』는 1972년 8월에 창간한 잡지로 대한나협회 기관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협회의 소식과 회원들의 동정을 중심으로 한센병의 계몽과 자활정착촌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다른 한센병 관련 잡지 『새빛』은 선명회 특수피부진료소에서 나병계몽지<sup>29)</sup>로 1963년 2월부터 『서광』으로 발간되다가 1964년 제호를 『새빛』으로 바꾸어서 1979년까지 발행했다. 『새빛』은 의학적, 전문적 지식, 종교 관련, 국외 자료 등 넓은 범위의 주제들을 통한 한센병 계몽에 초점두었다. 이 두 잡지 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본고의 저자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먼저 『복지』에 실린 미감아와 관련된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유준, 『개간사(改刊辭)』, 『새빛』, 새빛사, 1964, 3쪽. 『새빛』의 매체적 특성은 『개간사』에서 ‘유일한 나병계몽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lt;『복지』에 수록된 미감아 관련 텍스트&gt;

번호	제목	발간 년월 (호수)
1	절망(絶望) 없는 소외지대 =내가 본 어떤 낙원(樂園)	1973.3 (8호)
2	미감아 교육을 위한 문제점	1973.4 (9호)
3	정착장 탐방 - 새마을 운동에 앞장선 성화원	1973.4 (9호)
4	미감아 교육 문제 =사랑의 교실	1973.5 (10호)
5	『나병은 낫는다』 계몽(啓蒙) - 미감아 등교 소동 웬말	1974.3 (20호)
6	권두언 -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1974.5 (22호)
7	나환자의 자식이란 서러움 - 이 분노를 누가 만들었나!	1974.6 (23호)
8	<어린이날 특집> 미감아 어휘(語彙) 시비 - 미감아란 과연 존재하는건가	1975.5 (33호)
9	<어린이날 특집> 어린 가슴을 멎들게 하지 말자 = 미감아 교육의 문제점	1975.5 (33호)
10	<어린이날 특집> 어느 분교(分校) 선생님의 하루 <탐방>	1975.5 (33호)
11	정착촌(定着村)의 어제와 오늘 = 대한나협회 조사 결과	1975.5 (33호)
12	한 마리의 염소에 희망을 건다 - 정착촌 자녀 진학을 위하여	1976.8 (47호)
13	이제는 미감아란 말은 없다! - 어린이날을 맞아 모두 반성(反省)하자!	1979.5 (79호)

『복지』에 수록된 미감아와 관련된 텍스트는 주로 1970년대 초, 중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는 한센인들에게 행해진 단종수술이 점차 사라지고 정책적으로 정착촌이 형성된 후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이즈음 한센인들은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가 취학 연령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센인 자녀들의 입학이 현실로 다가오자 한센인의 자식, 미감아라는 이유로 일반 학부모들의 극렬한 취학 반대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한센인 부모들은 자신이 겪었던 사회적 차별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 속에서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교육을 받지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었던 한센인 부모들은 자녀만큼은 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탈 한센병, 탈 소록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복지』는 발간 초기에 미감아 문제를 계속 다루었다.

한센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대한나협회의 입장에서 협회 회원인 한센인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지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1970년대 중반 미감아의 교육 문제였다. 교육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했음에도 미감아들을 대상으로 한 등교 저지, 등교 거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센인 자녀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학적 진실과 인간의 의식, 사회 제도는 동시에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센인 미감아 문제가 바로 그 예이다. 인간의 심리나 가치관,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느리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감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알려야 했고, 일반인들의 공포를 없애기 위한 국민 계몽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래서 『복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미감아 교육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다.

또 하나의 수록된 텍스트들의 특징은 매년 3~5월에 중심으로 텍스트들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연히 어린이날을 염두에 둔 잡지 구성이다. 5월을 전후하여 미감아 문제를 다룸으로써 일반 어린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미감아들의 차별을 부각시키고자 한 목적이 있다.

사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미감아 문제는 교육보다는 가족 결합의 제한으로 인한 소외에 초점 맞춰져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 살 수 없고, 자녀는 보육원에서 길러졌으며 한 달에 한 번 수탄장에서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1960년대 이후에는 한센인 정착촌 정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그러므로 『복지』에서 미감아 교육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텍스트가 많다는 것은 잡지가 한센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를 다루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현실 지향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텍스트의 내용을 살펴면서 미감아 문제를 기술하겠다.

『복지』에 수록된 미감아 교육 관련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시 미감아들이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 등교를 할 수 없었던 현실을 다루고 있다.

지난 20일 문교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동안 대전동광국민학교에서 벌어진 행휴사건은 보건사회부, 내무부, 문교부 등 관계 당국의 조정으로 해결을 보아 전교생이 20일부터 일제히 등교하였다고 합니다. 동 맹휴사건은 학생 중에 나병환자가 있어 이러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없다고 해서 일어난 것인데 조사해 본 결과 이 미감아들은 절대로 병을 전염시킬 우려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알려져서 하루속히 등교하기를 종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미감아동 20명 중 금년도 신입생 9명만은 타교로 분산 수용하고 작년도부터 재학 중 이민 11명은 종전과 같이 동교에서 수업을 계속 받도록 해결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sup>30)</sup>

대왕초등학교 미감아 분규 일지

- ▲ 3월 5일 = 미감아들 대왕교 취학
- ▲ 3월 8일 = 일부 학부모 반발, 학교 측에서 미감아들에게 등교 정지 처분
- ▲ 4월 17일 = 『전염 우려 없다』는 보사부 통고로 미감아 다시 등교
- ▲ 4월 18일 = 학부모들 등교 거부 결의. 본격적인 분규 시작

30) 『동광국민교 맹휴해결』, 『경향신문』, 1958.06.23. 4면. 밑줄 인용자.

- ▲ 5월 6일 = 시교위 미감아 분리 교육기로 결정. 이에 대해 보사, 문교부 「즉시 철회」 요구
- ▲ 5월 9일 = 시교위, 미감아 분리교육 않기로 방침 바꾸는 한편 대왕교 학부모들에게 설득 강연
- ▲ 5월 12일 = 미감아들은 메디컬센터에 입원, 종합 진단
- ▲ 5월 14일 = 홍문교 딸 미영(13세)양 대왕교로 전학
- ▲ 5월 17일 = 대왕교, 미감아들을 병원에 둔 채 정상수업 시작
- ▲ 5월 20일 = 미감아, 이상 없는 것으로 진단
- ▲ 5월 27일 = 미감아 퇴원, 정보사 등 보사부 관리들 집에서 맡아서 기르기로
- ▲ 5월 28일 = 문교, 보사, 한국신학대 학부속국민교에 미감아들을 잠정적으로 전학시키기로 합의
- ▲ 5월 30일 = 에턴저 마을, 한국신학대학 부속국민교 전학 안에 강경항의
- ▲ 6월 4일 = 홍문교 딸 미영양, 경희국민교로 되돌아감
- ▲ 6월 24일 = 한국신학대학 부속국민교 개학. 미감아들 기숙사에서 생활
- ▲ 7월 26일 = 내곡동 동민들 미감아와 공학기로 건의문 작성<sup>31)</sup>

부산 남구 용호동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미감아 입학에 반대, 12일 2,500여 명의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은 채 300여 명이 학교에 몰려와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항의를 벌이다 학교 측의 설득으로 돌아갔다. 이 학교 재적학생 2,750명 가운데 등교한 150명은 정상수업을 받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체조와 유희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음성나 환자촌인 인근 용호농장의 미감아 교육을 위한 용산국교 용호분교가 설립된 있는데도 5월 12명의 미감아들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취학통지서를 받고 용산국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반발한 것. 학교 측은 이들 미감아들이 주소만 옮겼을 뿐 실제 이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입학에 취소, 용호분교로 옮기도록 종용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sup>32)</sup>

31) 「대왕초등학교 미감아 분규 일지」, 『조선일보』, 1969.07.27. 7면. 밑줄 인용자,

32) 「부산 용산국교 학부형 항의 미감아 12명 전학에 반대」, 『동아일보』, 1979.03.12.



위의 기사들은 20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미감아 등교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다. 미감아 취학 및 등교 거부 운동, 전학 등 미감아를 둘러싼 교육 문제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 교육 영역에서 가장 초점을 둔 것이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제였다. 당시만 해도 여러 사정으로 취학 아동이 적었던 상황에서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민이면 누구나 초등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미감아들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30년 넘게 빼앗긴 상태로 그들을 타자로 만든 사회와 일반인들의 ‘선처’<sup>33)</sup>를 기다려야 했다. 당시 문교부 장관인 홍종철의 딸까지 미감아 등교 거부 시위가 일어난 학교로 전학을 보내 미감아들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감아들이 학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미감아 등교 문제를 놓고 수십 년간 갈등이 반복되어온 중심에는 한센병의 전염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실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센병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으로 한센병이 완치되는 병이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역시 그동안 소록도에 집단 수용하여 외부와 격리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 자활정착촌을 만들고 한센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즉, 1960년대 이후가 되면 의학적, 과학적으로 한센병이 전염병

---

7면.

33) 이봉섭, 『절망없는 소외지대- 내가 본 어떤 낙원』, 『복지』 8호, 1973, 29쪽. 미감아 교육 문제는 1970년대 당시에도 여전히 일반인들의 선처와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이 여행기에서 이봉섭은 미감아 교육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교육장과의 면담에서 “선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교육장의 발언에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으로서 우리 사회에 위협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한센병에 대한 공포와 혐오에 있었다. 의학적으로 “이상 없음”이 밝혀졌고 이를 증명해 왔지만 일반인들의 의심은 끊임없이 이어져 등교 거부와 한센인에 대한 폭력이 계속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센인들이 즉각적으로 사회로 흡수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새빛』, 『복지』 등의 매체는 발간 초기부터 한센병에 대한 계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렇듯 한센인에 대한 합리적인지 않은 일반인들의 사고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또 다문화 국가를 지향하고 이미 다문화 국가로 들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타자를 양산해왔던 여러 편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향도 제시해준다. 타자의 존재가 어떻든 간에 이미 타자화 대상에 대한 타자가 아닌 이들의 판단은 합리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타자에 대한 편견 의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편견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왜곡된 인식 속에 타자들을 있는 그대로의 타자 모습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

이곳 어린이 36명은 가까운 장림국민학교에 가지 못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기 한 교실에서 삼복습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산 아래 구평동 마을 어린이들이 등교시간이면 이 마을을 지나 장림학교에 가지만 이들은 마을에 있는 장림분교실에 가야만 한다. 더욱 이웃한 정착장인 계림농원의 아이들은 바로 코닿는 장림학교에 가지 못하고 장림학교를 지나 이곳 분교로 오는 기현상을 빚게 하고 있다.<sup>34)</sup>

미감아와 일반인 자녀의 공학에 반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분교, 분리 수용이었다. 등교 거부와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양쪽의 학습권을 침해한 여러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각 정착촌에 분교를 설치하게

34) 『정착장 탐방 - 새마을 운동에 앞장선 성화원』, 『복지』 9호, 1973.4, 27쪽.

된다. 다시금 미감아들은 특수한 지역(정착촌)에, 특수한 학교(분교)에, 특수한 학생이 되어서, 특수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들에게 ‘특수’한 꼬리표를 달아준 것은 바로 우리이다. 그들이 특별하고 특수한 존재가 된 것은 그들을 특수한 감옥에 결박시켜 타자로 배제한 사회이다. 일반 학교를 두고도 ‘전용(全用)’ 학교에 가야만 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타자에 대한 배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불합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백인 전용’,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vip 전용’ 등 다른 존재를 구분하는 방식이 차등을 의미하는 타자 양산에 활용되었다. 특히 미감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진 타자의 영역으로 내몰렸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미감아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에도 여전히 감염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코로나 상황 하에서 본다면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완치 이후 접촉하는 경우에도 접촉자로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미감아는 해당 사항이 없다. 부모가 한센인인 경우에도 한센병 균은 배양이 어렵고 전염력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우 낮다. 또 대부분은 이미 치료가 완료된 병력자(병의 이력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전염의 위험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건강아가 바로 미감아”<sup>35)</sup>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미감아, 미감인이다. 어느 누구나 감염의 위험성을 지니며 감염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확정해서 미감이라는 용어로 한센병에 대한 두려움을 미감아들에게 투여해 봉인시켜 사회적 타자로 만들었던 현실은 우리 사회의 타자 만들기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인권 침탈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우리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떠올릴 것은 타자화시킬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타자

35) 전인기, 『<어린이날 특집> 미감아 어휘(語彙) 시비 - 미감아란 과연 존재 하는 건가』, 『복지』 33호, 1975.5, 13쪽.

가 되었을 상황을 바탕으로 타자들의 삶을 다시 살펴야 하는 것에 있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미감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타자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감아는 원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한센인의 통제 정책 과정에서 과거 비과학적인 추론으로 한센병을 유전병으로 치부하여 대를 이어 유전되는 것을 막고 이미 태어난 한센인 아이들은 유전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제도를 수립했다. 여기에 더하여 더 가혹한 생채기를 남긴 것이 일반인의 공포와 불안 의식을 권력을 지닌 이들이 활용하여 한센인 거부의를 우리 사회 내에 깊이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록도에서는 한센인의 감금과 단종수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이 논리성이나 증명 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2장의 분석을 통해서 미감아 정책과 제도가 일반인의 공포심을 더욱 조장하고 사실인 양 진실을 왜곡하여 각인시킨 후 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굴레를 씌워 미감아를 통해 수월하게 소록도 한센인을 통제할 목적이었음을 확인했다. 즉, 미감아 구분과 타자화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센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던 통치 세력이 자신들이 지녔던 왜곡된 가치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눈과 귀를 막아 만들어 낸 폭압적 결과였던 것이다.

한센인의 입장에서 미감아 문제는 가장 큰 약점이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였다. 자신들의 삶은 이미 인격이 파괴된 삶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고통이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타자의 굴레에 그들은 인간으로서 지닌 마지막 존엄을 선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심적 갈등을 겪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어떤 쪽으로든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었다.

2장에서 다룬 소설들이 소록도 한센인의 결혼, 거주, 자녀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 3장에서는 한센인 잡지 『복지』에 수록된 텍스트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대중들이 지닌 한센인과 미감아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양상을 살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1950년대~1960년대 한센인에 대한 정책이 강제 수용에서 집단 정착촌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한센인들의 가족 결합과 자녀 출산이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70년대가 되면 한센인 자녀들이 취학 연령에 들어갔다.

이미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니라는 사실과 감염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질병이라는 점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반인들은 여전히 한센인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감아들의 취학 및 등교 거부 운동이다.’ 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70년대 한센인 자녀 등교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이슈였고 한센인들의 기본권 쟁취와 일반인들의 공포심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전에 한센인들은 문제 현장에 자신을 노출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감아 논란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실제 현실의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논란은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사회 통제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했다. 현실에서 한센인과 그의 아이들이 그 대로이고 상대의 아이들도 그대로였다. 단지, 문제는 일반인의 두려움과 공포가 앞서 증명된 과학 지식과 의학적 근거들을 수용할 자신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미감아가 타자가 된 근거였다. 감염 가능성과 그에 대한 공포는 일반인들의 머리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와 의료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집단에 따라 가치의 의미가 결정된다. 즉, 그것은 타자를 양산하는 공동체가 판단하고 조정해서 한센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미감

아의 형성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감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센인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지배자나 통제 권력이 단종 수술과 함께 미감아라는 새로운 기피 대상을 만들어 냈다. 즉, 한센인의 자녀들이 미감아라는 이름을 달고 타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타자, 미감아를 이제 사멸해가는 한센인이라는 질병과 함께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타자화되어 간 과정을 살피면서 미감아와 그들의 부모가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봉섭, 「절망없는 소외시대- 내가 본 어떤 낙원」, 『복지』 8호, 1973.3.  
「정착장 탐방 - 새마을 운동에 앞장선 성화원」, 『복지』 9호, 1973.4.  
전인기, 「〈어린이날 특집〉 미감아 어휘(語彙) 시비 - 미감아란 과연 존재 하는 건가」, 『복지』 33호, 1975.5.  
유준, 「개간사(改刊辭)」, 『새빛』, 새빛사, 1964, 3쪽.  
「未感兒童의 保育問題」, 『새빛』, 1965.2, 7쪽.

### 2. 논문, 저·역서

- 국립소록도병원, 『소록도80년사』, 국립소록도병원, 1996.  
김경호, 「억압의 관점에서 읽는 한센인 차별의 어제와 오늘 - 사회복지 개입 방안의 모색」, 『사회연구』 17,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9, 9-37쪽.  
김성리, 「한센인의 생애구술과 치유」, 『의사학』 제 22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2013, 389-419쪽.  
김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김재형, 「한센인의 격리와 낙인·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9.  
김학균,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한센병의 은유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5, 한국현대문학학회, 2011, 405-430쪽.  
무명생, 「혈루록」, 『신동아』 3권 제11호-4권 제7호, 동아일보사, 1933-1934.  
소재원, 『그날』, 마레, 2014.  
심승, 「애생금」, 『신천지』 1권5호-2권4호, 서울신문사, 1946-1947.  
영남대학교총장 덕암 유준 박사 고회기념문집 간행·편찬위원회 편, 『나무 심는 마음』, 영남대학교출판부, 1986.

- 오현석,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 『인문연구』 79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101-134쪽.
- 윤정모, 『그리고 함성이 들렸다』, 실천문학사, 1986.
-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1976.
- 정근식, 『동아시아 한센병사를 위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12권, 한국보건사회학회, 2002, 5-41쪽.
- \_\_\_\_\_, 『사회적 타자의 자전문학과 몸 - 심승의 ‘나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3,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25-353쪽.
- 최성환, 『다문화주의와 타자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131-154쪽.
- 한순미, 『“나병은 낫는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구보학보』 21집, 구보학회, 2019, 457-489쪽.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68-69쪽.

### 3. 신문기사

- 『동광국민교 맹휴해결』, 『경향신문』, 1958.06.23. 4면.
- 『대왕초등학교 미감아 분규 일지』, 『조선일보』, 1969.07.27. 7면.
- 『부산 용산국교 학부형 항의 미감아 12명 전학에 반대』, 『동아일보』, 1979.03.12. 7면.
- 홍석재, 『고아 아닌 고아, 죄인 아닌 죄인...평생 ‘한센 가족’ 낙인, 한스 러위요』, 『한겨레』, 한겨레신문, 2022.4.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093.html?\\_ga=2.90157149.751405016.1661671731-1216278069.1661671731](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093.html?_ga=2.90157149.751405016.1661671731-1216278069.1661671731)



<Abstract>

## Migam-a(未感兒), Violence in the Future that has not Arrived

Oh, Hyoun-Suk\*

Based on novels, newspaper articles, and essays related to Hansen, this paper analyzed the family composition of Hansen's parents, the birth of children, and the problem of Migam-a(未感兒). The Hansen people in the novel were exploited in Sorok Island, Japanese colonial era. They have lived on the brink of isolation and discrimination all their lives. In particular, even the basic human rights of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deprived. Children born to avoid such a process of oppression have become another subject of discrimination under the name of Migam-a(未感兒). The Hansen people wanted to refuse to let punishment of heaven continue to their children.

In the novels of Lee Chung-joon, Yoon Jung-mo, and So Jae-won, problems related to discontinuation surgery, marriage permission, and childbirth of Hansen people were examined. Our society has dealt with the problem of taking away the basic human rights of Hansen people and suppressing their children with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in the future that has not arrived. For the control of the Hansen people, discrimination was created with the term "Migam-a(未感兒)" that could deliberately manage Hansen's children. In other words, Migam-a(未感兒) is a the other.

---

\*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the texts included in newspaper articles and Hansen's magazines 『Welfares』 were narrated centering on the movement to refuse to attend school for Hansen's children. Although it has already been medically proven that Hansen's disease is curable and not contagious, the public is still opposed to the activities of Hansen's children.

The problem of otherization of Migam-a(未感兒) is a combination of ignorance of infectious diseases, eugenics, and racism. Whether they wanted to or not, they had no choice but to go and stand in their place, which the world had already cut. In the end, it will be up to the community to track and restore the voices of those who have been reduced to the other

Key Words: Hansen's people, Hansen's disease, Migam-a(未感兒),  
『Welfares』, Lee Chung-joon, Yoon Jung-mo, So  
Jae-won, human right, the other

■ 논문접수 : 2022년 07월 24일

■ 심사완료 : 2022년 08월 19일

■ 게재확정 : 2022년 08월 23일